

인생과정 조망과 성인기 발달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개관논문은 연령관련적 변화로써 전생애 발달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발달적 조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인생과정 조망을 설명하고 발달심리학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0년대에 출현한 인생과정 조망은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맥락 속에서의 개별적 삶에 대한 연구를 격려하고, 사람과 맥락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며 사회구조와 인생경로의 조직화 및 재조직화에 관심을 갖는다. 전통적으로 발달심리학자들은 시간에 따른 개인의 변화를 연구하였으므로 발달에 미치는 맥락의 영향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 결과 발달적 조망에서의 맥락은 단순히 개인이 통과해가는 과정이나 상황으로 인식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하여 결혼과 자녀출산이 지연되고 무자녀 가족이 증가하였는가 하면 직업에서 은퇴하는 연령도 다양해짐으로써, 연령에 기초한 발달적 연구만으로 전생애 동안의 발달을 설명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때 사회적 경로와 누적적 연속성, 발달궤도 및 전환점을 중요시하는 인생과정 조망의 활용은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맥락적 변인들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심리학 연구를 한 차원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인생과정 조망, 발달적 조망, 사회적 경로, 발달궤도, 전환점

전통적으로 발달심리학자들은 시간에 따른 개인의 변화에 관심을 가졌으므로 연령은 특히 중요한 발달적 지표였다. 그들은 연령관련적 변화로써 전생애 동안의 발달을 설명하는 소위 발달적 조망(development perspective)에 의존하였으므로, 개인이 전생애 동안 맥락의 영향에 의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 발달적 조망에서의 맥락은 개인이 단순히

통과해가는 과정이나 상황으로 인식되었으므로 발달심리학자들은 사회적 상황이나 역사적 사건의 영향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증거로서 전생애 동안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를 제시한 Erikson(1963)은 개인이 사회문화적, 심리역사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기는 하였지만 이론의 핵심은 한 개인의 독특한 개체발생 과정에 있었다. 생애구조의 변화를 기초로

* 교신저자: 장휘숙, E-mail: hsjang@cnu.ac.kr

전생애 주기를 네 개의 시대로 구분한 Levinson (1978)의 이론도 직업과 결혼, 가족관계, 우정 그리고 종교를 생애구조 변화의 중심요소로 가정함으로써 사회문화적, 역사적 환경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이 통과해야만 하는 일련의 단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에 따라 출생동시집단내의 차이들은 비규범적 영향으로 간주되었고 과학적 연구의 주제가 되지 못하였으며, 역사적 그리고 비규범적 영향들은 단순히 개별사례적 특성으로 다루어졌을 뿐이었다(Mayer, 2003).

문제는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사회내의 합의된 연령규준이나 기대연령에 해당하는 사회적 시계(social clock)의 개념이 크게 약화되면서(Neugarten, Moore, & Lowe, 1965), 지금까지 규범적 발달로 인식되었던 인생사건들이 개인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연령에서 경험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학교 졸업과 결혼, 부모역할의 시작 그리고 직업생애의 시작은 성인기 시작을 특징짓는 규범적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연령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연령에서 경험된 인생사건들이 각 개인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그리고 결혼하는 인생경로를 선택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 후에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로를 선택하거나 취업하고 결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로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삶의 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과거와 비교하여, 결혼은 더 늦어지고 있고 자녀출산도 지연되고 있으며 결혼을 하고도 무자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을 뿐 아니라 직업의 유형과 직업을 갖는 시기 및 직업으로부터 은퇴하는 시기도 다양해짐으로써 인생과정은 점점 더 개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제 성인기의 규범적 사건으로 인

식되었던 많은 변화들이 규범적이기보다는 개별 특징적 사건으로 인식되는 추세에 있다(장휘숙, 2007).

전생애 발달심리학자인 독일의 Baltes(1993, 1994)도 연령은 아동기나 청년기 그리고 노년기의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매우 유용한 변인이지만, 성인초기와 중기에는 역사적 사건이나 비규범적 사건들이 더 중요한 변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각 개인은 성인기에 이르면 아동기나 청년기에서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상황에 노출되며, 동시에 더 광범위하고 복잡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연령만으로는 성인기의 변화나 발달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그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접근방식과는 다른 접근방식이 성인기를 위해 요구되므로 이 개관연구는 전통적인 발달적 조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조망으로 인생과정 조망(life-course perspective, 때로 인생과정 이론이라고도 불린다)을 소개하고 발달적 조망과의 접합점을 모색하려고 한다.

1. 인생과정 조망의 출현

1960년대부터 미국을 포함한 서구에서 시작된 인생과정의 개별화에 대한 인식은 1970년대에 이르러 인생과정 조망이라는 새로운 조망을 출현하게 하였다. 전생애 발달심리학은 물론 사회학과 인구통계학, 역사학, 인류학 그리고 생태학의 영향을 받은 이 조망은 인간발달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맥락과 인간발달을 연결지으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반에 시작된 종단연구들이 이 새로운 조망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직접적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인 종단연구로서 아동기부터 성인중기까지 성격에서의 연속성과

변화를 연구한 The Oakland Growth Study와 Berkeley Growth and Guidance Studies가 있다. 이 연구들은 모두 University of California in Berkeley의 아동발달연구소에서 수행되었고, 그 중 Oakland 연구는 Jean MacFarlane을 그리고 Berkeley 연구는 Nancy Bayley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하버드 대학교의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중기까지 추적하고 방어와 대처 메커니즘을 연구한 Vaillant(1977)의 중단연구와 Stanford

대학교의 Robert Sears를 연구책임자로 하고 Lewis Terman(Stanford-Binet 지능검사를 제작함)의 연구에 포함된 우수 아동들을 추적하여 1920년대와 제 2차 세계대전 및 성인후기까지 역사적 사건들이 연구대상자들의 삶에 끼친 영향을 규명한 중단연구(Crosnoe & Elder, 2004), 모두 인생과정 조망의 출현에 기여하였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대공황기 동안 개인의 삶을 연구하고 중년기까지 그들의 가족생활과 직업생애 그리고 건강상태를 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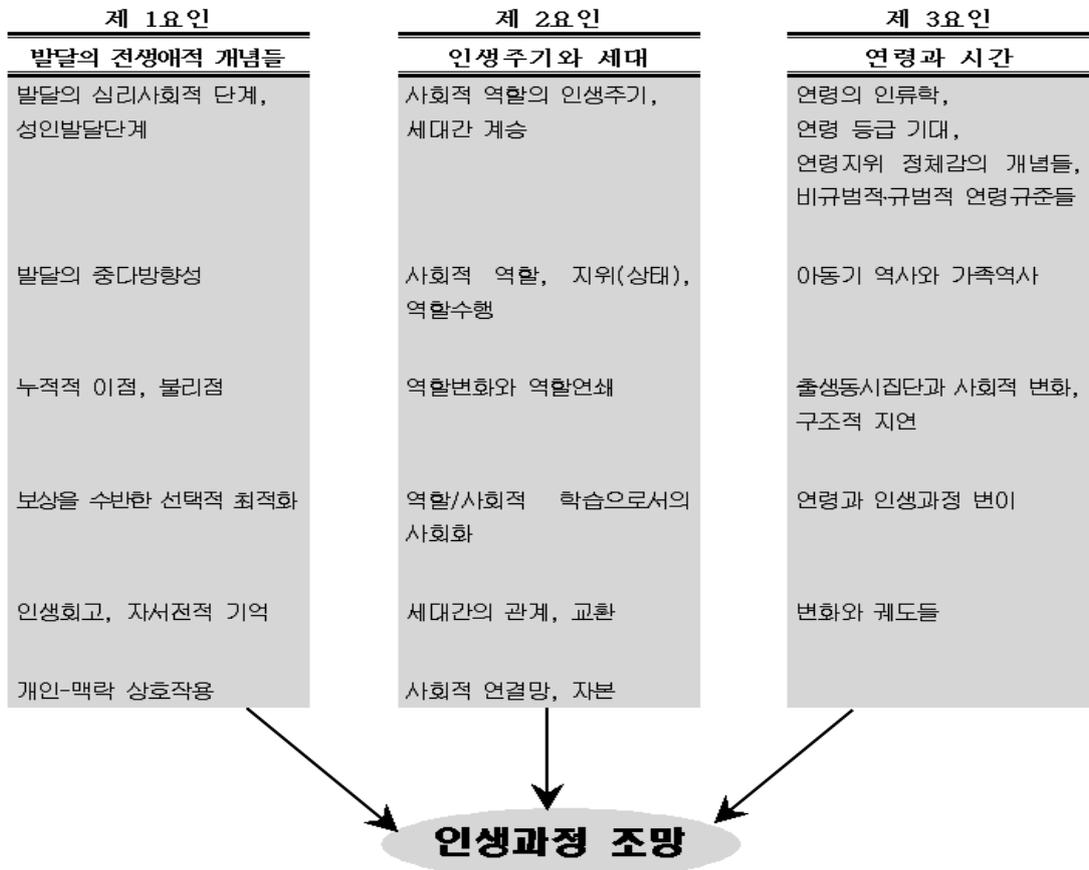


그림 1 인생과정 조망의 출현: 연구전통과 개념
출처: Elder & Shanahan, 1998.

한 Oakland Growth Study(Elder,1974/1999)는 이 새로운 조망의 출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 결국 이러한 종단연구들은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맥락의 효과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인기로 가는 어떤 경로가 행동적 연속성이나 변화를 촉진시키는지 그리고 어느 경로가 문제 아동이 삶의 방향을 바꾸어 효율적인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밝힐 수 있게 하였다.

그림 1은 Elder와 Shanahan(1998)이 인생과정 조망의 출현에 기여한 요인들을 정리한 결과이다. 이 그림에서 제 1요인은 전통적인 전생애 발달심리학 관련요인들이고 제 2요인은 사회적 역할의 발달과 관련된 요인들로서 중년의 역할연쇄와 그것들의 변화에 의해 개인의 인생패턴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와 관련된다. 그리고 제 3요인은 사회의 연령구조에 대한 주관적 경험과 인생과정에 대한 개인 자신의 구조화를 강조한다.

2. 인생과정 조망이란 무엇인가?

인생과정 조망이란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맥락 속에서 변화하는 삶에 대한 연구를 격려하는 이론적 지향으로(Elder & Shanahan, 1998) 사람과 맥락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고 변화하는 맥락과 전생애 발달간의 연결을 강조한다. 또한 인생과정 조망은 사회적 구조와 인생경로의 조직화 및 재조직화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미세체계부터 거대체계까지 환경의 중다수준 개념을 포함하는 인간발달의 생태학의 목적과 개념을 공유한다. 동시에 인생과정 조망은 개인은 천성에 따라 발달하기보다는 사회적 맥락에 의해 계속적으로 생성되고 유지되고 변화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을 독특한 개인으로 만드는 것은 개인이 속해있는 맥락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Mortimer(1994)의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젊은이들의 미취업 상태는 자기효능감을 포함하여 자기개념에서의 감소를 초래하였고 심리적 괴로움을 증가시켰으며 일에 대한 기대를 저하시켰다. 물론 저하된 기대는 직업에 대한 탐색동기마저 훼손시키게 될 것이므로 맥락은 개인의 특성을 형성하거나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과정 조망에서의 각 개인은 맥락과의 관계에서 단순히 영향을 받기만 하는 존재는 아니다. 그들은 다양한 맥락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능동적 주체들이다. 그러므로 인생과정 조망에서의 개인의 발달은 유기체가 그 자신의 발달에 능동적 역할을 하는 유기체-환경간의 교류과정에 해당한다. 이 조망에 의하면, 발달하는 개인은 정서나 인지 혹은 동기와 같은 분리된 요소로서가 아니라 역동적 전체로 기능하며 구체적인 역사적 변화와 함께 출생동시집단의 특성까지도 연결된다. 예를들면 출생, 사춘기, 그리고 사망은 생물학적 현상이지만, 인생과정에서의 그것들의 의미는 각 현상이 일어나는 시대적 특성이나 역사적 사건의 영향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생애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 조건은 성인기로의 이동을 위해 요구되는 구혼 패턴과 결혼, 출산여부와 첫 출산의 시기 및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세계로의 진입과 관련되므로 출생동시집단간에는 물론 출생동시집단 내에서의 변이의 근원으로 작용한다. 그에 따라 동일한 출생연도를 갖는 사람도 변화의 속도와 순서에서 다르고 가족압력과 아동기 사회화는 물론 개인적 안녕을 추구하는 방식도 달라지며, 노화의 진행도 매우 다르게 일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연령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인생과정 조망에

서의 연령은 변화가 때 맞추어 일어나는지,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지와 같은 변화의 시기와 순서에 대한 기대로 표현되므로 출생연도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같은 출생동시집단에 대한 연구는 Elder (1974/1999)가 “대공황기의 아동들”(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을 출판한 이래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인생과정 연구들은 역사적 변화에 한정되지 않고 출생동시집단의 맥락적 특성들도 함께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특히 가난의 경험과 경제적 위기, 주거 이동과 이웃의 구성적 특성, 가족구조와 가족구성원,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경험들, 취업패턴 그리고 이민 등은 출생동시집단 내에서 현저한 다양성을 생성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들이었다. 따라서 인생과정 조망에서는 집을 떠나거나, 결혼하기 혹은 자녀출산을 인간발달의 규범적 요소로 규정하기 보다는 개별적인 인생과정을 만들어내는 변인으로 간주한다. 예를들어 전생애 동안의 형제자매 관계는 개인이 결혼하거나 출산하거나 혹은 직업에 전념해야 하는 동안 덜 중요해지므로, 발달심리학자들은 형제자매 관계의 질적 변화를 연령에 따른 변화로 설명하고 청년기와 성인후기보다 성인중기 동안 형제자매간의 유대가 더 약화된다고 설명한다(Schmeeckle, Giarusso, & Wang, 1998). 그러나 인생과정 조망에서는 이것을 연령변화의 결과로 보지 않고 특정한 인생과정에서의 변화의 결과로 간주한다. 물론 변화가 부재할 때 즉, 결혼하지 않거나 출산하지 않거나 혹은 집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인기 동안에도 형제자매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인생과정 조망은 인간발달을 시간에 따른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결과로 간주하기 때문에(Caspi & Roberts, 1999), 발달과정의 일부는 누적적이고 연속적인 반

면, 다른 부분들은 불연속적이고 새로워서 이전의 사건이나 과정과 거의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Baltes, 1997). 그 결과 인생과정 조망에서는 무엇이 개인을 이전의 발달경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변화에 특히 민감한 시기가 존재하는지를 규명하려고 하므로 이 조망에서는 사회적 경로와 누적적 연속성, 발달 속도, 전환점과 같은 역동적 용어들이 사용된다(Elder, 1998).

1) 사회적 경로

경로는 조직체나 제도 내의 사회적 지위의 연쇄를 의미하며(Merton, 1982, 1984), 특히 제도화된 경로는 “사회적으로 기대된 지속기간”에 해당한다. 그 예로서 투표연령과 결혼연령은 의존의 지속기간이 끝남을 신호한다. 일반적으로 경로는 연령에 따라 구분되고 비교적 빠르다거나, 느리다거나 아니면 때 맞추어 이루어지는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경로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구조화하므로 경로 중의 일부는 개인적 동기에 기초하여 상황적 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행되는 반면, 다른 일부의 경로들은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바람직한 길이 차단된 채 진행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경로들은 거대체계(정부)에 의해 확립되고 미세체계 수준에서의 제도적 영역들(경제, 교육 등)과 지역공동체(학교, 직업시장, 이웃)들이 개인을 특정한 경로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거대체계부터 미세체계까지의 각 수준들은 부분적으로 인생과정의 결정과 행동 사이의 조화나 부조화의 영역을 조절하므로 우리는 인생과정을 생각할 때 중다수준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경로에서 지체되는 아동들은 직업경로에서도 지체되므로 교육경로와 직업경로는 인생과정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인

간발달에서 경로를 고려한다면, 아동이나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부모의 영향은 이미 학교 교육의 영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어린 아동의 인생경로를 생각해보자. 인생초기에 아동의 경로는 부모의 주거지나 사회경제적 역사에 의해 시작된다. 이 시기 동안 다른 아동과의 작은 차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축적되고 성인초기까지 성취와 전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심리학자들은 인생과정의 변화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성인초기에 나타난 차이를 자주 개인의 독특한 특성에 기인된 차이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1990년대까지도 발달심리학자들은 종단연구를 수행할 때조차도 연구의 시작시에만 사회경제적 환경을 측정하였을 뿐(Elder & Pellerin, 1995), 가족의 역동적 특성들이 아동의 안녕과 성취를 결정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Schoon과 그녀의 동료들(2002)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기, 청년기 그리고 성인초기까지의 물질남용을 예언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위험요인들의 계속성을 입증하였다. 물론 물질남용의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도 사회경제적 경험의 큰 다양성에 의존한다. 물질남용 외에도 가난의 지속기간이나 실직 혹은 저임금 직업에 종사한 기간 역시 아동의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부모의 사망률을 증가시킨다(McDonough, Duncan, Williams & House, 1997). 또한 사회적 계층의 중다의 측면들도 개인의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와같은 관계는 각각의 경험이 지속되는 기간에 의존한다.

2) 누적적 연속성

개별적 경향성과 가족가치 양자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선택하게 하고, 그것은 또한 양자

사이의 조화를 강화하고 유지한다. 그 예로서 반사회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젊은이는 문제있는 젊은이들과 유친하는 경향이 있고, 그들과의 상호작용은 반사회적 젊은이의 행동을 강화함으로써 누적적 불이익을 생성하게 한다(Cairns & Cairns, 1994; Sampson & Laub, 1997).

누적적 연속성과 관련하여 상호적 연속성의 개념도 자주 활용된다. 상호적 연속성이란 동일한 결과를 유지하고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는 경험들의 축적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청소년의 나쁜 성격은 부모의 분노와 공격성을 자극하고 결국 부모역할의 철회를 생성하며 그것은 다시 청소년의 공격성을 강화한다(Pepler & Rubin, 1991). 일반적으로 공격적 아동은 타인들이 적대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적대감을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하며 그것은 다시 아동의 공격성을 강화한다.

최근 많은 연구결과들은 인생초기의 사회적 경험들이 더 이후의 건강이나 안녕에 누적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제시한다. 한 예로서 아동기 동안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성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했을 때도 26세에서의 신체적 건강의 중요한 예언자였다(Poulton 등, 2002). 성인기 동안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하였다고 할지라도, 낮은 사회경제적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높은 사회경제적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들과 비교하여 더 보잘것없는 건강 상태를 나타내어 누적적 연속성의 존재를 입증하였다.

3) 발달궤도

개인의 발달궤도는 시간경과에 따른 동일한 행동이나 경향성에서의 변화와 항상성을 보여주며, 개인의 행동과 성취에 대한 역동적 견해를 제공한다. 각 개인은 교육, 직업, 가족, 사회적 역할 등에서 특정한 궤도를 그리면서 단기간 혹은 장기간에 걸쳐 발달한다. 발달궤도 상에서의 변화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성공적으로 첫 학년을 끝내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 사건으로 구성된다. 특정한 역할의 시작과 종결을 포함하는 각 변화는 특정한 형태와 의미를 가지고 하나의 궤도 속에 포함된다. 특히 직업선택은 개인의 인생 궤도의 핵심적 요소이고 출생은 부모궤도에서의 중요한 지표들 중의 하나이다.

인생과정 조망에서는 개인의 발달궤도들이 사회적 궤도들의 변화와 상호의존적 관계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예로서 성장곡선 모델(growth-curve models)에 기초하여 청년초기 소녀들의 우울증을 연구한 Ge와 그 동료들(Ge, Lorenz, Conger, Elder, & Simons, 1994)은 (a) 백인 소녀들의 우울증후 궤도는 13세에 가파르게 증가하여 소년들의 수준을 능가하였고, (b) 소녀들의 우울증후의 증가는 부정적 사건에의 노출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c) 인생초기의 어머니의 온정과 지원이 딸의 우울상태와 부정적 사건들의 후속적 위험을 최소화하였다고 보고함으로써 사회적 상황의 변화가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강조하였다.

궤도상에서의 시기는 인생변화의 크기와 연결된다. 변화가 인생초기에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효과는 더 지속적이고 누적적이다. 부모역할에 기인된 인생변화들은 수년 혹은 수십년이 경과한 후에도 후속적 변화에 영향을 주어 개인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발달이 일어나게 하므로, 인생초기에 경험하는 변화의 질적 특성은 더 이후의 변화에 대한 성공적 적응이나 부적응의 가능성을 예언한다. 일반적으로 발달심리학자들은 인생변화를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나는 분리된 사건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체적 변화로 인도하는 작은 변화들의 연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4) 전환점

인생과정 조망에서는 이전의 발달경로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특별한 사건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기를 전환점(turning point)이라고 명명한다. 전환점에 이르면 과거의 결정들은 재평가되고 새로운 역할기대에 직면하며,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싶어진다(Brammer, 1992; Levinson, 1986; Rutter, 1996). 그러므로 전환점이란 발달궤도 상에서 지속적 변화를 초래하거나 적어도 활동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인생사건에 해당한다(Clausen, 1995).

전환점적 사건들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변화의 기회를 차단하기도 하므로, 개인의 생활양식과 자기개념 및 역할에서의 변화를 초래하고(Pickles & Rutter, 1991), 타인과 세계에 대한 견해를 변화시키며(Clausen, 1995), 개인적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Rutter, 1996). 물론 전환점으로 지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인생사건이나 변화가 개인에게 유의미해야 하고 개인의 발달궤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하며, 개인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주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전환점을 분명하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입학하기, 가정을 떠나기, 결혼하기 등이 전환점적 사건으로 인식되지만, 전환점은 긍정적 전환점과 부정적 전환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긍정적 전환점은 자녀출산과 결혼, 목표실현, 직업이나 일을 통한 더 좋아진 경제상태(Stallings 등, 1997) 등을 포함하며 종교적 전념과 기대하지 않은 기회 등도 긍정적인 전환점으로 인식된다. 긍정적 전환점에서는 새로운 역할과 행동패턴이 생성되고 부적응적 발달경로의 방향조차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Rönkä, Oravala & Pulkkinen, 2003). 대조적으로 부정적 전환점은 자

주 상실과 연결되고 대인관계 문제나 개인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실패를 포함한다(Brammer, 1992). 또한 파산과 질병 그리고 가까운 타인의 죽음도 부정적 전환점으로 작용한다(Rönkä, Oravala, & Pulkkinen, 2003).

30대 중반의 핀란드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Rönkä와 Oravala & Pulkkinen(2003) 연구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전환점들은 가족생활과 관련된 사건들로서 결혼이나 이혼 혹은 자녀출산이었고, 그 외에 교육과 직업 그리고 사회적 이동과 관련된 인생사건들이 흔하게 언급된 전환점적 사건들이었다. 유사하게 한국의 3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장휘숙(2008)의 연구에서도 30대 남녀 성인들은 결혼과 취업 그리고 출산을 가장 중요한 전환점적 사건으로 보고하였고, 그 외 남성들은 군복무와 대학생활을 그리고 여성들은 가족구성원의 죽음과 대학생활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하였다. 서구에서는 교육이 흔하게 언급된 전환점적 사건 등 중의 하나이지만, 한국의 30대 남녀는 구체적으로 대학생활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였다. 또한 Clausen(1995)의 연구에서도 남성들은 군복무 및 직업적 사건과 관련된 결정들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간주하고, 여성들은 직업적 사건과 함께 의미있는 관계에서의 변화를 더 자주 전환점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어느 나라에서나 여성들의 인생 경로는 출산과 양육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Caffarella & Olson, 1993), 가까운 사람들의 건강 문제와 연결된 사건들을 전환점으로 보고하여 타인과의 관계나 애착을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여성적 성역할을 반영하였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에 대해 통제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흐름에 영향력을 행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또한 더 높은 수준의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지각할 수 있다(Grob, 2000). Brammer(1992)와 Clausen(1991)도 전환점의 본질적 요인은 각 개인이 전환점에서 가질 수 있는 선택의 양이라고 제안하고 전환점적 사건이 발생할 때 개인이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면 사건발생의 시기는 물론 더 이후에 이루어진 평가에서도 전환점적 사건은 긍정적으로 지각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Rönkä와 Oravala 및 Pulkkinen(2003)의 연구에서도 개인적 선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특정한 사건들은 더 긍정적으로 지각되는 경향이 있었다.

3. 인생과정 조망의 원리

인생과정 조망은 다음과 같은 원리들을 포함한다.

첫째, 인간발달과 노화는 전생애 동안 일어난다. 영아기와 아동초기부터 성인후기까지의 전생애 동안 더 이후 단계의 발달은 더 이전 단계의 발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중년기에서의 행동 패턴은 현재의 상황은 물론 태대기를 포함한 이전 단계에서의 경험의 결과물이다. 비록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생애를 연구한 장기적인 종단연구가 없기는 하지만, 개인의 삶을 더 길게 연구하면 할수록 개인이 경험한 사회적 변화에의 노출도 증가할 것이므로 성인후기 노인들의 삶은 젊은이들의 삶보다 사회적 특성의 변화를 더 많이 반영할 것이다. 이와같은 긴 삶의 여정에서 어떤 행동패턴은 사라지고 어떤 행동패턴은 왜 오래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를 규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생과정 조망이 활용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생동안의 변화들은 주도적인 개인의 행동과 상황적 제약이나 기회, 개인이 새로운 상황에 가져오는 특정한 경향

성이나 이전의 경험들, 그리고 타인들의 영향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다.

둘째, 각 개인은 역사적, 사회적 상황의 기회와 제한 내에서 그들이 선택하는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과정을 구성한다. 개인의 선택은 인생 단계와 사회적 변화를 연결하고, 특히 계획적 선택은 성인기 동안 안정된 결혼생활과 직업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성인후기까지 생활만족을 경험하면서 자기실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Clausen, 1995). 따라서 개인의 계획능력(planful competence)은 목표와 가치 및 장점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환경을 선택하게 하므로 인생과정 조망에서 매우 중요시된다.

Clausen(1991, 1993)의 중단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 3학년에서의 계획능력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결혼생활 안정성 및 교육적 달성도와 관련되어 있었고, 그것은 남성들의 직업적 성취 및 직업안정성과 연결되며 더 이후의 성인기에서의 생활만족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인의 계획능력도 세계 대공황이나 제 2차 세계대전, 독일통일, 한국전쟁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 때에는 주변의 상황적 요인들이 개인의 인생과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셋째, 발달적 선행요인들과 인생변화, 사건 그리고 행동패턴의 결과들은 인생과정의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이혼을 포함하여 특정한 사건을 경험하는 시기가 개인의 인생과정에 차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부모가 이혼하여 한부모 가정이 되는 것은 전생애 동안 언제 가장 유해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McLanahan과 Sandefur(1994)에 의하면, 아동의 교육에 미치는 부모 이혼의 효과는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가장 부정적이었다. 또한 한부모 가정에서 생활한 시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혼은 아동

의 발달에 더 유해한 영향을 주었으며 여아보다 남아들이 부모의 이혼에 의해 더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예로서 아동기에 시작된 반사회적 행동과 청년기에 시작된 반사회적 행동이 후속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중단적으로 연구한 Moffitt와 Caspi, Harrington 및 Milne(2002)는 반사회적 행동의 아동기 시작집단이 청년기 시작집단보다 26세에 이르렀을 때 정신병질적 성격특성과 정신건강 문제, 폭력이나 약물관련 범죄, 물질의존 그리고 직업관련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학교졸업과 첫 취업, 독립적 주거, 이성친구와의 동거, 결혼, 자녀출산, 자녀가 가정을 떠나는 것 그리고 부모의 사망은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연령에서 경험되고 있다. 또한 자신을 젊다거나 중년이라거나 늙은 사람으로 지각하는 시기에서도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인생과정 조망에 의하면, 부정적인 가족사건을 경험한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개인은 누적적으로 불리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넷째, 개인의 삶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고 사회-역사적 영향은 그들 사이의 공유된 관계망을 통하여 표현된다. 개인의 삶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타인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개인의 중요한 발달적 맥락인 동시에 호위대(convoy)의 역할을 한다(Antonucci & Akiyama, 1995). 유의미한 타인들은 개인에게 인생변화를 초래하거나 경험하게 하며, 그들이 지니고 있는 기대나 영향은 개인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수로화한다. 유의미한 타인들의 예로서 형제자매들은 그 관계가 양육적이든, 경쟁적이든 혹은 갈등적이든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Brody, 1996). 형제자매 중 첫아이는 부모역할의 유능감을 저해하거나 강화함으로써 동생들의 발달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부모나 친척 혹은 교사들

이 형제자매들에게 각기 다른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부부 또한 서로의 발달궤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타인들이다. Caspi와 Herbener(1990)의 연구에서 서로 강한 유대를 형성한 부부들은 각자의 특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유사한 타인들과 친교함으로써 20년 동안 유사한 발달궤도를 나타내었다. 이외에 친구, 교사, 이웃도 인생과정에서 유의미한 타인들로서 중요한 호위대로서 기능한다(Elder & Shanahan, 1998).

다섯째, 개별적 인생과정은 전생애 동안 역사적 시기와 장소의 영향을 받는다. 미국의 대공황기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들(Elder, 1974/1999)은 이 시기의 경제적 조건이 미국 동부와 서부에서, 도시와 시골지역에서 그리고 도시마다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하면 대공황이라는 역사적 시기에 생존하였는지 아닌지, 생존하였다면 몇 살에 대공황을 맞았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살았는지가 개인의 인생과정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유사하게 1950년의 한국전쟁이나 그 이후에 일어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사건들 그리고 보다 최근의 2002년 월드컵, 한미 FTA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점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사건들 중에서도 전쟁은 성장기의 아동들이 누릴 수 있는 가족생활과 교육기회를 붕괴시키고, 전후의 황폐화된 경제 속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하며, 취업한다고 할지라도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인생과정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

4. 발달심리학 연구의 지향방향

인생과정 조망은 전생애 발달심리학의 가정과 일치되게 인간발달과 노화는 일생동안 일어나고 그것들은 연속성과 변화로 표현되며, 인생초기의 발달은 이후의 인생궤도에서의 건강한 적응을 위한

기초라고 강조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조망은 각 개인은 다양한 상황과 경험을 다르게 해석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의미를 할당함으로써 그들의 환경과 사회적 경로를 변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인생과정 조망은 개별적 발달경로들이 사회적 요구와 거기에 대한 개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맥락과 개인은 서로 상관관계를 이루므로 인생의 변화는 상황적 요구가 변화하고 변화를 위한 압력이 증가할 때 일어난다는 입장을 취한다.

전통적으로 아동에 기초한 발달모델(child-based models of development)은 인생 후반부에서의 발달과 노화를 역점두어 다루지 않을 뿐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 결과 지금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성인기 연구들은 개인이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경로들이 매우 다양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Elder & Shanahan, 1998).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개인이 성인기에 진입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젊은이는 대학, 취업 그리고 결혼의 순서로 인생경로를 경험하고, 또 다른 젊은이는 군복무를 마치고 취업과 교육의 혼합경로를 경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인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 성인기에 이르렀는가이다. 예를 들어 청년기 동안 이루어지는 결혼과 부모역할은 30대에 이루어지는 결혼과 부모역할과는 다른 결과를 불러 일으킨다. 전자의 경로는 규범적 시간표를 따르는 후자의 경로보다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제한을 더 많이 받는 반면, 후자의 경로는 경제적 이점을 최대화하고 어린 아동에게 미치는 파괴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발달연구는 Elder와 Shanahan(1998)의 제안대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문제를 역점두어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① 아동기초한(child-based) 성장지향적(growth-oriented)

혹은 개체발생적(ontogenetic) 발달에 관한 설명에서 인생과정에 따른 발달과 노화에 적용가능한 모델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② 개인의 삶이 항상성과 변화의 패턴을 나타내면서 시간에 걸쳐 어떻게 조직화되고 발달하는가?

③ 사회적 변화와 이동의 발달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개인의 삶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을 어떻게 연결지을 것인가?

그러므로 인생과정 조망은 지금까지 발달심리학 연구에서 발달적 결과로 간주한 많은 연구결과들이 순수한 발달적 변화이기보다는 맥락의 영향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론적으로 거대체계의 변화는 중다수준을 통해 그리고 사회적 구조를 통해 개별적 인생과정을 변화시키므로 발달심리학자들은 거대체계에서 미세체계까지의 맥락에 대한 연구를 함께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더욱이 맥락의 영향은 아동기나 청년기보다 성인기 동안 더 커지므로 성인기 연구에서는 맥락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발달심리학자들은 연령에 기초한 전통적인 발달심리학적 연구와 함께 지금까지 간과한 맥락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작업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실제 연구에서 맥락의 효과를 어떻게 규명하고 그것이 개인의 발달에 주는 영향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개별적 특성에 대한 종단연구를 수행하는 것일 것이다. 종단연구는 시간경과에 따른 발달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물론 각 개인이 동일하거나 상이한 역사적 사건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도 분리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맥락의 효과는 양적 연구보다 질적 연구에 의해 더 효과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므로 성인초기와 중기는 물론 성인후기의 노인들에 대한 질적 연구가

수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맥락은 중다차원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하나의 맥락적 특성만이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는 맥락과 맥락의 상호작용에도 관심을 갖고 그것이 개인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규명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생과정 조망은 인간의 개별적 특성과 함께 발달에 미치는 맥락의 영향을 함께 연구해야만 인간발달에 관한 완전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는 Kurt Lewin(1943)의 장이론과 Bronfenbrenner(1979)의 인간발달의 생태학 그리고 Richard Lerner(1998)의 발달적 맥락주의가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단지 하나의 전망있는 이론들로 간주할 뿐 맥락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시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맥락을 중요시하는 기존의 이론들을 기초로 개별적 특성을 연구하는 동시에 각 개인의 발달궤도를 추적하고 전환점을 확인하며 사회적 경로와 누적적 연속성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병행한다면, 개별적 발달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전체적 이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달심리학의 학문적 역사에서 지난 20세기를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춘 시기라고 한다면, 이제 21세기는 개별적 발달에 미치는 맥락의 역할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 발달심리학자들의 주된 과업일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다.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고 상황의 동물이기 때문에 맥락의 영향을 중요시하는 인생과정 조망은 발달심리학 연구를 한 차원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장휘숙(2007). 성인심리학. 박영사.
- 장휘숙(2008). 인생의 전환점. 미발표.
- Antonucci, T. C., & Akiyama, H. (1995). Convoys of social relations: Family and friendships within a life-span context. In R. Blieszner & V. H. Bedford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family* (pp. 355-371).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Baltes, P. B. (1993). The aging mind: Potential and limits. *Gerontologist*, 33, 580-594.
- Baltes, P. B. (1994).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On the overall landscape of human development*. Invited address at the 102nd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ivision 7), Los Angeles.
- Baltes, P. B. (1997). On the incomplete architecture of human ontogenesis: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as foundations of developmental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52, 366-381.
- Brammer, L. M. (1992). Coping with life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15, 239-253.
- Brody, G. (Ed.). (1996). *Sibling relationships: Their causes and consequences* (Advances in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Series). Norwood, NJ: Ablex.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affarella, R. S., & Olson, S. K. (1993). Psychosocial development of women: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dult Education Quarterly*, 39, 5-17.
- Cairns, R. B., & Cairns, B. (1994). *Lifelines and risks: Pathways of youth in our time*.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spi, A., & Herbener, E. (1990). Continuity and change: Assortative marriage and the consistency of personality in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250-258.
- Caspi, A., & Roberts, B. W. (1999). Personality continuity and change across the life course. In L. A. Pervin & O. P. Joh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2nd ed., pp. 300-326). New York: Guilford Press.
- Clausen, J. A. (1991). Adolescent competence and the shaping of the life cours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 805-842.
- Clausen, J. A. (1993). *American lives: Looking back at the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New York: Free Press.
- Clausen, J. A. (1995). Gender, contexts, and turning points in adults' lives. In P. Moen, G. H. Elder Jr., & K. Luscher (Eds.), *Examining lives in context: Perspectives on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pp. 365-389). Washington, DC: APA.
- Crosnoe, R., & Elder, G. H., Jr. (2004). From childhood to the later years: Pathways of human development. *Research on Aging*, 26(6), 623-654.
- Elder, G. H. Jr. (1998). The life course as developmental theory. *Child Development*,

- 69(1), 1-12.
- Elder, G. H. Jr. (1999).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Social change in life exper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4)
- Elder, G. H., Jr., & Pellerin, L. A. (1995). *Social development research in historical perspective, 1965-89: Is it more longitudinal and contextual today?*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 Elder, G. H., Jr., & Shanahan, J. (1998). The life course and human development. In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5th ed.). New York: Wiley.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Ge, X., Lorenz, F. O., Conger, R. D., Elder, G. H., Jr., & Simons, R. L. (1994). Trajectories of stressful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4), 467-483.
- Grob, A. (2000). dynamics of perceived control across adolescence and adulthood. In W. J. Perrig & A. Grob (Eds.), *Control of human behavior, mental processes, and consciousness. Essays in honor of the 60th birthday of August Flammer* (pp. 325-344). Mahwah, NJ: Erlbaum.
- Lerner, R. M. (Ed). (1998).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In W. Dam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5th ed.). New York: Wiley.
- Levinson, D. J.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Knopf.
- Levinson, D. L. (1986). A conception of adult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1*, 3-13.
- Lewin, K. (1943). Psychology and the process of group living.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7*, 113-131.
- Mayer, K. U. (2003). The sociology of the life course and life-span psychology: Diverging or converging pathways. In U. M. Staudinger and U. Lindberger (Eds.), *Understanding human development: Dialogues with lifespan psychology* (pp. 463-481). Boston: Kluwer.
- McDonough, P., Duncan, G. J., Williams, D., & House, J. (1997). Income dynamics and adult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 1972-1989.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9), 1476-1483.
- McLanahan, S. S., & Sandefur, G. (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What hurts, what help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erton, R. K. (1982). *Socially expected dur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 Merton, R. K. (1984). Socially expected durations: A case study of concept formation in sociology. In W. W. Powell & Richard Robbins (Eds.), *Conflict and consensus: A festschrift for Lewis A. Coser*. New York: The Free Press.
- Moffitt, T. E., Caspi, A., Harrington, H., & Milne, B. J. (2002). Males on the life-course-persistent and adolescence-limited

- antisocial pathways: Follow-up at age 26 yea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4(1), 179-207.
- Mortimer, J. T. (1994). Individual differences as precursors of youth unemployment. In *Youth, Employment, and Society*. ed. AC Petersen, J. T. Mortimer.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 Neugarten, B. L., Moore, J. W., & Lowe, J. G. (1965). Age norms, age constraints, and adult socializ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0, 710-717.
- Pepler, D. J., & Rubin, K. H. (1991).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J: Erlbaum.
- Pickles, A., & Rutter, M. (1991). Statistical and conceptual models of turning points in developmental processes. In D. Magnusson, L. R. Bergman, G. Rudinger, & B. Törestad (Eds.), *Problems and methods in longitudinal research: Stability and change* (pp. 133-16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ulton, R., Caspi, A., Milne, B. J., Thomson, W. M., Taylor, A., & Sears, M. R. (2002). Association between children's experience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adult health: A life-course study. *Lancet*, 360, 1640-1645.
- Rönkä, A., Oravala, S., & Pulkkinen, L. (2003). Turning points in adults' lives: The effects of gender and the amount of choic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0(3), 203-215.
- Rutter, M. (1996). Transitions and turning points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s applied to the age span between childhood and mid-adult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 603-626.
- Sampson, R. J., & Laub, J. H. (1997). A life-course theory of cumulative disadvantage and the stability of delinquency. In T. P. Thornberry (Ed.),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Vol. 7, pp. 133-161).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Schoon, I., Bynner, J., Joshi, H., Parsons, S., Wiggins, R. W., & Sacker, A. (2002). The influence of context, timing, and duration of risk experiences for the passage from childhood to mid adulthood. *Child Development*, 73(5), 14586-1505.
- Schmeeckle, M., Giarusso, R., & Wang, Q. (1998). *When being a brother or sister is important to one's identity: Life stage and gender differenc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Gerontological Society, Philadelphia.
- Stallings, M. C., Dunham, C. C., Gatz, M., Baker, L. A., & Bengtson, V. L. (1997). Relationships among life even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ore evidence for a two-factor theory of well-being.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6, 104-119.
- Vaillant, G. E. (1977). *Adaptation to life*. Boston: Little, Brown.
-
- 1차 원고 접수: 2008. 7. 15
수정 원고 접수: 2008. 8. 3
최종 게재 결정: 2008. 8. 4

Life-Course Perspective and the Development of Adulthood

Hwee-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ain about life-course perspective as an new alternative for the traditional developmental perspective and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developmental psychology. Life-course perspective being appeared in the 1970s encouraged the study of personal life in the changing contexts, valued the interactions between person and contexts, and took interest in the social structure, organization and reorganization of life course. Traditionally developmental psychologist was concerned about personal changes across time but not the effects of contexts. To apply life-course perspective to developmental psychology was expected to play the hightening the level of the developmental study.

Key words: life-course perspective, developmental perspective, social pathways, developmental trajectory, turning point